"배 재배 매뉴얼화·유기농법 확산 힘쓸 것"

17년간 친환경 배 한길…유기농 명인 영암 허정철 씨

유효미생물 직접 배양 토양 관리···생선·미나리 등 혼합한 영양제 개발 껍질째 먹는 유기농 배 '기찬 배' 브랜드로 학교급식 공급 등 2억원 소득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 업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현재 제가 생산 중인 유기농 배는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지고, 친환경 농산물의 질도 크게 향상되고 있어 앞으 로가 더 기대됩니다."

영암에서 17년째 친환경 배 한 길만을 걸어오며 연 간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허정철(66) 유기농

농업 전문가들마저도 배는 친환경 재배가 불가능하 다고 말렸지만, 허 명인은 지난 2011년 유기농인증을 획득, 현재까지 11년째 유기농 배를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베테랑인 허 명인은 적은 면적에서 고소 득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다 유기농 배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04년부터 배를 친환경농업 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재배가 까다로운 유기농 배 재배를 실천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부분은 토양관리다. 허 명인은 기능성 세 라믹, 게르마늄 등 50여 물질에 유효미생물을 직접 배 양해 토양에 뿌려주고 녹비작물까지 재배하며 땅심을

높인다. 농장에 방사한 오리떼도 잡초를 제거하는 친 환경농업 일꾼으로 토양관리에 도움을 준다.

특히 배의 경우 태풍이나 병충해 피해가 잦고 한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최소 2년이나 걸린다. 재배 기간도 8개월 이상으로 벼 등 다른 작물에 비해 3~6개 월이 더 길어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이다.

유기 과수 재배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충해 관리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장어 등 생선과 미나 리, 쑥 등 야채를 혼합해 직접 만든 영양제를 배나무에 뿌리고 원적외선까지 방사해 배의 면역력을 높이고 있 어요.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해충은 교미교란제, 포 획기를 설치해 방제하고 있습니다. 유효미생물을 지속 적으로 토양・엽면 시비를 해줘 면역력 강한 배를 생산 하는 것이 제 노하우입니다."

현재 1.7ha 규모 농원에서 유기농 배를 30t가량 생 산하고 있으며, 생산품은 '기찬 배'라는 브랜드로 온라 인과 직거래, 학교급식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가격은 5kg 한 상자에 8만원으로, 연간 2억 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과일의 안 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 물지원, 남도장터·백화점 입점 등 공급망을 확대할 계 획"이라며 "유기농 배 성공사례를 표준농법으로 매뉴 얼화하고 이를 재배농가에 적극 전파해 유기농업을 확 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에 부부 2쌍 선정

토마토・가지 재배 진도농장 친환경 · 유기농업 실천 용소농장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로 문광선·장영화씨 부부(광주원예농협), 최홍주·김 순례씨 부부(서영암농협)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의 새농민상(像)'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실천해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 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 달 지역농협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문광선씨 부부(광주시 광산구 진도농장)는 1998년 귀농해 현재 토마토, 가지 재배를 통해 자립경영을 달 성한 선도농업인이다. 온수 순환식 연탄보일러를 스스 로 개발해 주변에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 강사로 활동 해왔다.

최홍주씨 부부(영암군 학산면 용소농장)는 1980년 귀농해 15년 가까이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14년 동안 유기농단지의 단지장으로 활동하며 유기 농 쌀 유통 및 소비촉진에 앞장서 왔다.

박서홍 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



장영화·문광선씨 부부(왼쪽)와 김순례·최홍주씨 부부.

개선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희망 찾기 헌혈 행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사진) 임직원들은 지난 2일 '희망 찾기 헌혈' 행사를 벌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협업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혈액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진식 본부장은 "분기별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 나눔 헌 혈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원불교 前 광주전남교구장 전산 이정택 대봉도 열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을 지낸 전산 이정택 대봉도가 지난 2일 열 반했다. 세수 74세, 법랍 49년.

4일 원불교에 따르면 1963년(원기 48년) 원불교에 입교한 전산 대 봉도는 1972년 출가한 뒤로 초량교당, 대전교당, 서울교당, 전농교당 등에서 봉직했다.

그는 감찰원 부원장, 대구경북교구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광주 전남교구장으로 일하다 2016년 퇴임했다. 이후 원불교 상주선원 교령 으로 교단의 크고 작은 의식행사를 주관해왔으나 갑작스러운 병환에

세상과 작별했다.

원불교는 2021년 교무 가운데 큰 업적을 쌓은 이에게 주는 법훈인 대봉도(大奉道)위를 그 에게 수여했다.

전산 대봉도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원불교 영모묘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인권침해 예방 교육



전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순천시체육 회,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등 순천체육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침해 예방교 육을 실시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글로벌 뉴스

14:10 EBS 다큐프라임

15:05 지식채널e

15:15 클래스 e

◇과장급 전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류교류과장 박흥규

EBS₁

12:10 아주 각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45 이 맛에 산다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토몬카 35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1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설계 알짜배기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뱅글스쿨(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류수영의 동물티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섬마을 할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빨강 구두	05 다큐플렉스 스페셜 〈전원일기 2021〉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3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스페셜	00 라켓소년단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튜디오 K 35 영상앨범 산(재)	05 스포츠 매거진 4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40 나이트라인

- 05:50 한국기행

05:00 왕초보영어

- 06:10 세계테마기행

- 08:45 방귀대장 뿡뿡이
-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 08:30 출동! 슈퍼윙스
- 09:00 뽀롱뽀롱 뽀로로
- 09:30 우당탕탕 아이쿠

- 07:00 코코몽2
-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 07:30 꼬미와 베베
- 08:00 딩동댕 유치원

- 15:50 가만히 10분 멍TV 16:00 마샤와 곰
 - 16:15 개구쟁이 조이 16:30 딩동댕 유치원(재)
 - 16:50 내 친구 몬덕이 17:00 EBS 뉴스

- 17:20 세미와 매직큐브
-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 18:00 생방송 방과 후 듄듄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 19:35 자이언트 펭TV
-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 20:40 세계테마기행
- 〈포토제닉 아시아
- -그랑블루의 유혹, 팔라우〉 21:30 한국기행
- 〈그 여름의 추억 1부 뜨거워도 좋아〉
-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 010-9790-8237

- 23:35 클래스 e
- 23:5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5일 (음 5월 26일 甲寅)



子

36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화 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48년생 대범한 행동을 보일 때다. 60년생 가희, 괄목상대할 만하다. 72년생 미흡한 점이 보이 거든 미루지 말고 손질하자. 84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형국 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96년생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34,73 37년생 대체로 양호한 형태를 띠겠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 다. 49년생 그 자체로써의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61년생 지리멸렬하여 왔던 소강상태를 끝내게 될 것이 다. 73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85년생 반복 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97년생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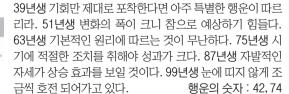


卯

辰

丑

정돈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10,72 38년생 전체적인 판국에 맞는 미래 지향적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50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할 것이니라. 62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이 절실한 판국이로다. 74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86년 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알라. 98년생 뜻대로 진 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36,52





40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52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64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76년생 기대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용기보다는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00년생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 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행운의 숫자: 04,81



41년생 필요로 해 왔던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3 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 65 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77년 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89년생 어떠한 유혹 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01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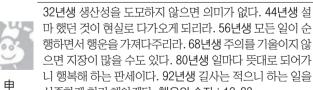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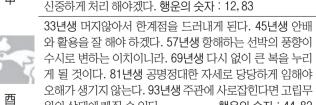
42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54년생 고정 관념을 가 지고 있다면 핵심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66년생 전체적으 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78년생 길 조가 비춰오고 있다. 90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 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02년생 새로움을 접하는 기쁨은 대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37,84



未

43년생 산 넘어 산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이다. 67년생 결정 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도다. 79년생 발 빠른 실태 분석과 조처가 절실하도다. 91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 록 주의 해야겠다. 03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 되겠지 만 결과는 알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96





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44,82 34년생 불완전하지만 전혀 무리가 없겠다. 46년생 합리성 이 풍요로움을 도모하게 된다. 58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수도 있다. 70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 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82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켜갈 수 있다. 94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르니 저절로

행운의 숫자: 03,80

행운의 숫자: 07,70

35년생 탄력이 붙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 자. 47년생 이미 짜인 구도이니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리 라. 59년생 불편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71년생 멈 추었다가 다시 속개되는 모습이다. 83년생 독창성을 발휘하 는 것이 유용하리라. 95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 큰 것을 볼

흥겨운 콧노래가 나올 것이다.



戌

수 있는 안목을 갖자.